

## 삼보일배와 새만금 갯벌의 미래

장지영

### 생명과 평화를 위한 참회, 삼보일배

지난 3월 28일 전라북도 부안의 새만금 갯벌에서는 서로 다른 복잡만금이나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온 세상과 새만금 갯벌의 생명·평화를 염원하며 한자리에 모였다.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라는 4대 종단의 성직자들과 환경운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이들을 하나로 묶고, 한 길을 함께 가게 만든 것은 새만금 갯벌에서 울려 퍼지는 생명의 소리 때문이었다.

1987년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선거공약으로 제안되어, 1991년 방조제 공사가 시작되고 이제 12년이 다 되어가는 새만금 간척사업. 바로 이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시키고 새만금에서 울려 퍼지는 생명과 평화의 소리가 끊이지 않기를 염원하며 세 걸음마다 한 번 절하는 삼보일배三歩一拜 고행이 시작되었다.

석유라는 한정된 생태적 자원을 독점하기 위한 미국의 침략적 이라크 전쟁으로 온 세상이 슬픔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은 이라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명살상이 새만금 갯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못 생명들에 대한 생명파괴와 다르지 않다며 새만금 갯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삼보일배 기도수행을 소리 없이 시작한 것이다. 천주교의 문규현 신부, 불교의 수경 스님, 기독교의

이희운 목사, 원불교의 김경일 교무, 4명의 성직자와 수많은 시민, 환경운동가들은 그렇게 조용한 길을 떠났다.

삼보일배에서 세 걸음은 인간의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을 뜻하며, 한번의 절에는 인간의 탐욕으로 죽어간 자연에 대한 참회의 뜻이 담겨 있다. 하루종일 3천여 번의 절을 하며 갈 수 있는 거리는 고작 5~6km. 상상을 초월하는 인내와 고통을 감수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고행이었기에 어느 누구도 그들이 서울까지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말 믿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3월 28일 부안 해창 갯벌을 떠나, 65일만에 총 310km의 거리를 거의 기다시피 하여 서울 광화문에 도착한 것이다. 현대문명의 이기라는 자동차로 3시간이면 충분히 도착하는 거리를 무려 65일만에 도착한 것이다. 또한 그동안 이들과 함께 삼보일배 기도수행을 하면서 새만금 갯벌 생명의 소리를 찾아 나선 시민은 주중 하루 평균 300여 명(주말 500여 명)에 달하였다. 자동차로 3시간이면 되는 거리를 65일 동안,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느린 속도로, 가장 고통 어린 모습으로 새만금 갯벌을 살려야 한다는 소리 없는 행진을 하는 이들의 모습은 말 그대로 바보들의 행진이 아니었을까?

### **새만금 갯벌은 살고 싶다 '새만금 방조제 4공구를 뚫어라!'**

지난 6월 12일 이른 아침. 새만금 갯벌의 숨통을 끊는 4공구 물막이 공사가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에 의해 기만적으로 강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전국의 환경운동가 80여 명이 밤새 4공구 방조제로 들어갔다. 전날 새만금 4공구 방조제가 막히고 있다는 다급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국 각지의 환경운동가들은 긴박하게 모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른 아침 4공구 공사 현장에 도착한 이들은 이미 물

길이 막힌 4공구 방조제를 삼과 곡괭이를 이용하여 파내려갔다. 부실하게 막힌 4공구 방조제는 6시간 작업 끝에 2m 깊이의 물길이 만들어졌고, 방조제를 사이에 두고 끊긴 물길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작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다. 오후 들어 농업기반공사의 소집으로 도착한 전라북도 새만금추진협의회 소속 회원들이 물대포를 포함한 갖은 물리적인 폭력으로 평화적인 환경운동가들을 폭행하고 방조제에서 쫓아낸 후, 뚫어 놓은 물길을 포크레인인으로 단 5분만에 또 다시 막아버린 것이다. 포크레인이라는 중장비를 동원하면 5분만에 할 수 있는 일을, 80여 명의 사람들이 6시간 동안 고통스럽게 새만금 갯벌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진행한 해수유통은 바보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 정치적 거래와 조직이기주의가 만든 비극

#### '새만금 간척사업'

새만금 간척사업은 자연생태계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없던 시기에 계획되고 확정된 것이다. 1987년이라는 시대가 그러했듯이,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누구도 이 사업으로 인한 환경재앙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했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강 하구 갯벌에 대한 대규모 간척사업을 진행하면서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한 번 진행한 것이 없으며, 지역공동체 해체에 대한 논의 한 번 없었다. 시화호라는 비극적인 재앙을 겪은 나라에서 또 다시 갯벌을 막아 담수호를 만들겠다는 무모함. 또한 이 사업으로 인해 벌어질 어패류 급감, 회류성 어류의 산란지 파괴, 서식지의 파괴로 인해 멸종위기에 처한 철새 문제.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환경재앙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세상에서 가장 길다는 방조제 길이만큼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해 벌어질 환경문제는 수도 없이 많이 지적되었으며, 이 사

업을 추진하고 있는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는 물론 정부 어느 부처에서도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해 벌어질 문제들에 대해 명확하게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80%의 국민이 반대하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여전히 진행되는 것은 바로 정치적 거래와 조직이기주의가 이 사업의 배경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처음 만든 것은 1987년 대선에서 전라북도의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이었으며, 이후 이 사업을 시작하도록 만든 사람들 역시 지역주민에게 개발의 환상을 심어주면서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던 정치인들이었고, 사업의 환경적 문제점이 지적되고 경제성이 없다고 명확하게 증명된 지금의 시점에서조차 여전히 새만금 간척사업을 이끌고 가는 것은 바로 정치인들이다.

또한 이들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의 조직이기주의이다. 2001년 새만금 간척사업을 강행하면서 쌀이 남아 문제가 될 것임을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던 농림부. 이들은 새만금 간척사업을 계속 강행하기로 결정한 이후 100여 일만에 쌀 증산정책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만들어진 간척지의 5배 가까이 되는 130,000ha의 기존 농경지를 2005년까지 줄여나가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농사를 포기할 경우 1ha당 매년 300만 원을 보상하는 강력한 농지축소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기준의 2배가 넘는 재고쌀로 인해 매년 1,0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이러한 농림부가 식량안보를 이유로 진행하는 것이 바로 새만금 간척사업이다. 앞에서는 농지를 축소하는 정책을 펴면서, 뒤에서는 농지를 만들겠다고 간척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농업기반공사는 어떠한가? 이들은 말 그대로 간척사업을 위해 존재하는 공기업이다. 이들은 이미 화옹호에서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역시 자신들의 조직과 일자리를 먼저 사수하였다. 답수호

포기 여부와 새만금 갯벌의 해수유통 방안을 모색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지자, 이들은 거꾸로 4공구 물막이 공사를 바로 강행한 것이다. 방조제 공사가 중단될 경우 향후 50여년 이상 보장된 철밥그릇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자신들의 조직 유지가 국민의 환경권보다 앞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의 조직이기주의가 정치논리와 함께 새만금 문제를 합리적이고 발전적으로 풀어나가기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체다.

### 상생의 길을 찾자

최근 서울 행정법원에서는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새만금 사업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고, 이로 인해 새만금 갯벌 살리기운동에 또 다시 희망이 솟아오르고 있다. 이번 판결의 중요성은 2001년 8월 제기한 "새만금매립기본계획에 기초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행정소송 판결 선고" 전까지 공사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본안소송의 승소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재판부는 "새만금 담수호 문제는 환경부가 제출한 수질보전 대책에 의해서도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하면 아직 정확한 가치를 모르는 새만금 갯벌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주된 요인이다. 또한 이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면 일부 방조제의 유실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새만금 갯벌의 가치에 비교하면 불가피한 측면"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목숨을 건 65일간의 삼보일배 기도수행은 인간의 탐욕에서 시작된 새만금 문제를 화해와 치유 속에서 상생하는 해법을 찾으려는 절박한 심정에서 시작되었다. 새만금 갯벌을 살려야 한다는 의미는 환경문제를 넘어서서 자연 생명에 대한 근원적 가치를 우리 동시대인

들에게 던져 주고 있다. 새만금사업 중단 요구는 전라북도 한 지역의 간척사업 중단이 아니라 그간 우리 사회를 밀고 왔던 근본들의 변화를 요구하는 거대한 외침이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탐욕과 무지, 개개인의 파괴적 감성을 극대화하는 국가 정책 및 국가 운영 방식은 이제 변해야 한다.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넘어 생명 그 자체에 대한 존엄성과 존귀함을 가꾸는 사회를 추구해야 한다. 변화의 시금석은 바로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과 그간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진 수많은 개발정책의 재검토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그러한 차원에서 새만금 갯벌은 경제적으로 소외된 전북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그 바탕에서 전북발전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러나 노무현 참여정부는 여전히 답이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듣기 좋은 소리로 개혁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과거 개발시대의 정책을 중단시키는 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지난 정부 최악의 환경정책을 전임정부가 결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지속한다는 것은 개혁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제는 선택하여야 한다. 새만금 갯벌의 온전한 보전을 가로막는 방조제 공사를 잠정 중단하고, 진정한 국가의 이익과 지역균형발전, 미래세대를 위한 현명한 선택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역사적 사명이다. ■

---

장지영 jangjiy@kfem.or.kr | 1996년부터 현재까지 환경운동연합에서 활동 중. 현재 갯벌탐방으로 활동 중이며, 새만금 관련 삼보일배 실무 진행을 담당했으며, 시화호·팔당상수원 보호운동 등을 주도하고 있다.